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시설 아동간의 태도 차이\* -

함철호\*\* . 이태수\*\*\* . 이용교\*\*\*\*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분석틀과 조사가설
- III. 조사방법
- IV. 조사결과와 해석
- V. 결론

### I. 서론

시설보호가 근대사회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사업의 가장 최초의 주된 기능이자 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sup>. 그런데, 시설양호에 대한 평가는, 일반사회인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한편에서는 소위 “최악의 가정이라도 최선의 시설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 하는 소극적 부정적인 시설양호관이 남아 있다. 그런 반면에 소위 적극적 집단주의 양호 이론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현대 가정의 약화된 기능은 아동양호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면만이 증대해 가고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설 양호에 의한 집단양호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강조되고 있다<sup>2)</sup>.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지역복지, 정상화, 탈시설화의 논의 및 실천도 시설보

\* 본 연구에서 소규모아동복지시설이라함은 현행 사회복지관련법상 상시 30인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는 ‘무허가’시설을 의미한다. 한편, 본연구의 설문조사과정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무허가 및 법인운영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분들과 아동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조교수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조교수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野澤正子(著), 兒童養護論, 장영인(역),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인간과 복지』, 1991, p. 97.

2) 大谷嘉朗·霧藤安弘, 兵野一郎(編), 『施設養護の理論と實際』, ミネルウア書房, 1974. p. 27.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고, 시설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은 사회가 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국에서 커티스위원회 보고서 이후 입양이 강조되어, 입양보호가 처음에는 시설보호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선택이라 생각되었지만, 실제로 입양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으며, 항상 시설보호를 그 차선택으로 필요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많은 분석가들은 “전환시설화(transinstitutionalization)”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시설화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현상을 예로 들면, 1960년대에서 1989년까지 일반적 수용의 기능보다는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치료에 초점을 두는 시설이 증가하고 시설 수용 인구도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sup>3)</sup>.

지금까지 “사회사업의 가장 최초의 주된 기능이자 방법”으로서 시설보호가 탈시설화, 전환시설화되는 것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것은 시설보호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근래에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수용 시설 부문은 가장 중요한 부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복지시설은 비중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복지현상중에 하나인 시설에 대한 연구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시설을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하는 연구, 시설 퇴소연장아동의 자립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시설 청소년들의 생활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방안을 연구하는 것, 시설 아동의 행동 특성, 시설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을 비교하는 연구 등이다. 또한 최근에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을 소규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sup>4)</sup>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아동 시설의 소규모화 주장이 되고 있지만, 서구에서는 시설의 규모나 형태 면에서 소숙사(Cottage)제도, 소규모 시설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역사가 만든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카두신은 상당히 오래 전에 “소규모 시설에서는 대규모 시설의 장점을 상실하고 대규모에서는 소규모 시설에서의 장점을 상실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시설 규모의 딜레마 : 소규모인가 대규모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sup>5)</sup>.

3) Steven P. Segal, "Deinstitutionalizatio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ASW, NASW Press, 1995, pp. 704-711.

4) 김용석(외),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54.

5) A. Kadushin, "Myths and Dilemmas in Child Welfare," *Child Welfare*, LVI(3), March,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77, p. 15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에 있어서, 소규모 시설이 대규모 시설보다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역사적 주장(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볼 것임)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것이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이론적 배경 : 분석 틀과 조사 가설

### 1. 시설 보호 이론의 계보

#### 1) 존 보울비의 모성 박탈 이론

전후 얼마 안되어 세계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1951년에 국제연합보건기구에 의한 소위 보울비의 조사보고서(Bowlby's Report)인데, 이것은 시설보호효과의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추적 조사 보고이다. 보울비는 인격 형성 과정에서 모성적 양육(maternal care)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와 영아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또한 어머니와 아동 모두의 만족과 행복감이 충만된 상태"의 인간관계를 결여한 아동의 상태를 '모성적 양육 상실' 또는 '모성박탈(maternal deprivation)'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종래의 시설병(hospitalism)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증상의 원인이 유전이 아니며, 결손가정에 그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모성 박탈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sup>6)</sup>.

그렇다고 해서 보울비가 시설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집단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시설을 보호의 한 자원 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한정적인 이용방법을 처우방침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시설이 가치가 있으려면 '소규모의 전문화된 시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 2) 가정적 처우론

보울비의 이론은 일본의 시설 관계자들에게 시설부정론 내지는 시설필요악론으로 받아들여져 충격적인 타격을 주었다. 전후 일본에서 보호이론은 이 충격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가정을 모델로 하는 보호 형태에 기초한 가정적 처우론, 그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숙사 제도론 및 기술적 대응으로서의 개별사회사업의 도입론이 대표적이다.

먼저 소숙사론은 일본의 石神井學園 원장이었던 호리문지(堀文次)<sup>7)</sup>가 어떻게

6) John Bowlby,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黒田實郎(譯), 『乳幼兒の 精神衛生』, 岩崎學術 出版社, 1967, p. 63.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운영하면 일반 가정의 아동과 다름없이 육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신중히 탐구하는 데에서 보호이론을 찾았다. 그는 시설병이라는 용어<sup>8)</sup>가 포괄하고 있는 증상을 “대규모 집단육아제도에서 나타나고, 아동의 시설 수용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수용소병이나 수용소벽(癖)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일반 가정의 아동과 달리 집단 육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수한 버릇이나 증상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시설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호리몬지는 '시설아동에 대한 보호 인원의 부족'으로 본다.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시설에서는 한 두명의 부모가 몇 명의 아동을 나누어 맡는 상황에서, 시설 아동에 대한 양육자 총 인원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수적인 부족 문제로 시설 아동들은 그 시대의 한 사람의 문화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과 예의범절 지도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시설병이기 때문에 이 해결은 보호 담당자를 늘리는 것이고 그 기반은 소규모 숙사제도라고 생각한다”<sup>9)</sup>라고 서술하면서, “보호의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직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양적 문제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동과의 부모와의 거리를 짧게 하는 기본적인 대응으로서의 소숙사제도를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사회사업 기술의 도입론은 호리몬지의 인원부족론에 근거한 소숙사제도의 제안에 대하여 당시 中理學원장이었던 쓰메조 켄조(瓜巢憲三)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시설병의 진정한 원인은 보호의 지도성 결여에 있고, 따라서 보호 형태의 객관적 조건과 더불어 보호 내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게 되었다<sup>10)</sup>.

그는 시설병에 대한 지도와 기술의 개선을 주장하고, 아동을 시설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미국에서 개발된 사회사업 기술을 시설에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클라이언트인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시설의 개별사회사업은 친밀한 성인과 아동의 개인 대 개인의 역학적 관계이고, 상대방에게 성실과 존경, 신뢰의 태도를 결여해서는 안된다. 어른의 흥미와 명령에 의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흥미와 욕구에 의한 집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집단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통제를 중시

7) 堀文次, “養護理論確立への 試み(その1)”, 『社會事業』, 33(4), 1950.

8) 1952년 2년 동안 ‘후생과학연구비’에 의한 시설병 연구가 谷川貞夫를 대표로 하는 연구 집단에 의해 진행되어 대규모의 조사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것은 시설병의 존재를 실증하고, 일차적으로 입양제도를, 이차적으로 소숙사제도를 채용한다는 호리몬지의 논문을 추인하는 결론을 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谷川貞夫, “ホスピタリズムの研究 - その究明過程における諸契機について”, 『社會事業』, 36(10), 1953; \_\_\_\_\_, “ホスピタリズムの研究 - その豫防及び治療對策への考察”, 『社會事業』, 37(9), 1954.

9) 堀文次, “養護理論確立への 試み(終編)”, 『社會事業』, 33(6), 1950, p. 13.

10) 瓜巢憲三, “保護の 指導性と 技術の 問題”, 『社會事業』, 33(12), 1950, pp. 6-18.

하고 집단모델을 존중하는 자발성 존중의 원리가 적용된다.

결국 이들 두 접근법은 시설병이 시설 아동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원인으로 호리몬지는 보호 담당 인원의 부족을, 쓰메쵸 겐조는 보호 기술의 부족을 거론하여 가정적 처우를 위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 3) 집단주의적 보호론

이 보호론은 1964년 제18회 전국양호시설장 연구협의회 석상에서 積惟勝이 "보호 이론을 적극화하고, 시설을 집단주의의 장으로 하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처음 시작되었고, 적극적 보호 이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sup>11)</sup>.

그에 있어서 아동과 직원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시설이라는 집단은 일시적으로 성립하는 집단이 아니고, 또한 집단의 인간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치료의 역할을 하는 조작 대상으로서의 집단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 그러하듯이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집단이고, 인간이 거기에서 길러지는 토대로서의 집단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서로 유기적이고, 집단과 개인이 조화롭게 통일된 소위 '생활공동체'로서의 집단구성, 그것을 어떻게 창출하는가가 보호의 핵심인 것이다.

생활 공동체의 원리는 동료 집단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연대 의식으로 유지되고 서로 성장하고 배우는 원리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동료 의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이 세끼다 다가스에 있어서는 집단주의 사상이다. 집단주의 사상은 개인과 집단과의 통일(상호성장·발전하는)속에서, 상호원조, 단결, 연대라고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자각된 법률 사상이라고 정의된다<sup>12)</sup>. 이 이론에서 시설은 '생활의 장' 내지는 '인간형성의 장'이라는 관점이다. 그후의 '집단주의 보호론'에 기초한 모든 실천은 이러한 점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주의 보호론의 하나의 성과이기도 하다.

### 4) 치료적 처우론

치료적 처우론은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의 증가에 대응하여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설을 치료기관화하자는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아동홈(children's home)에서 치료홈(residential treatment home)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 내용도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에바 버메이스터는 그녀의 저서<sup>13)</sup>에서, 치료적 처우의 내용은 아동과 시설부모와의 장시간에 걸쳐 구축된 신뢰 관계, '놀이, 의복, 작업, 식사, 용돈 등 집단생활

11) 積推勝, "この人に聞ぐ-集團主義養護の確立を目指して", 『季刊兒童養護』, 10(1), 全社協, 1981.

12) 浦邊史·積推勝·泰安雄(編), 『新版 施設養護論』, 미네르바서방, 1980. pp. 50-51.

13) E. Burmeister, *The Professional Houseparent*,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60.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의 매일 매일의 전 과정'속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가치를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치료적 보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보호를 담당하는 보모나 지도원이 아동의 부모에 대신하여 아동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근한 성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치료 과정은 일상생활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동의 즐겁고 맛있는 식사와 생활환경의 애정 어린 정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 치료적 처우는 아동 개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넷째,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등의 방법과 그 외의 많은 전문적 원조가 아동 한사람을 위해 투입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를 위한 사례연구가 각 영역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에서 보호이론에 대해 개관하여 보았는데, 요약하자면, 보호형태론(소속사제도)과 보호기술론(사회사업의 도입과 집단형성론, 치료적 처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보호형태론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소규모시설의 효과성을 증명하려는 연구이다.

### 2. 조사 가설 :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가동복지시설 아동의 차이

앞의 에바 버메이스터는, 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서, '생활집단', '건물과 설비', '식사와 간식', '수면·목욕', '의복·작업', '놀이의 중요성', '놀이 기구', '예절 교육', '애완동물', '성교육', '크리스마스'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집단생활'에서는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과 함께 집단의 크기가 그 질을 좌우하므로, "아동과 시설보호cottageparent의 비율은 20:1보다 더 적은 8 : 1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소규모 생활 집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집단 구성, 집단 속에 개별화, 일상생활 그 자체에 아동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데에는 아동에 대해 아낌없이 주는 태도, 아동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느끼는 감수성, 전문가로서의 관점과 역량이 필요하며,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기르는 데에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전문가 집단의 검토 및 학습의 지속 등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호 기능과 관련하여 시설이 갖추어야만 하는 체계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으로서, ①주거 ②의복 ③음식과 같은 물적 보장과 ④ 이들을 통합하는 생활 환경 정비 ⑤ 관리,원조,지도가 있다. ④ ⑤는 아동을 주체로 한 생활의 창조를 지도원, 보모가 조성하고 육성하는 행위이다. ① ② ③의 물적 보장 또한 ④ ⑤의 성인에 의한 대화 및 지도 즉 보호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주거 형태, 의복 상태, 음식 상태 등, 이 모든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고,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의 관리, 원조, 지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호에는 다음의 항목이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안정된 생활의 보장과 관리가 필요하다. 안정된 생활 경험의 혜택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동들에게 수면과 식사,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있는 생활의 장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확실한 생활의 장을 기반으로 할 때, 정서적 안정과 자아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원조의 내용은 ① 아동의 생활 창조에 대한 원조, ② 부모 - 자녀관계의 존중, 조정, 보강 ③ 집단생활과 개인 생활의 조정 및 조화라는 3가지이다. 끝으로 지도에는 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원조 ② 학습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있다.

지금까지 아동 양육을 위해 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과 아동 보호의 방법으로 관리·원조·지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관심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관리·원조·지도하는데 있어서, 대규모 시설이 아동들에게 긍정적인가 아니면 소규모 시설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은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보았다시피, 소규모 시설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을 - 아동 양육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이 바람직하다는 -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소규모 시설에 사는 아동들과 대규모 시설에 사는 아동들을 비교해 보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 에바 버메이스터가 이야기한 음식, 주거, 의복 등의 기본적 양육 조건과 양육 방법인 관리·원조·지도에 대해 대규모 시설 아동과 소규모 시설 아동들의 태도를 조사해 비교해 보는 것이다.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양육 조건을 ①의·식·주, ②일상생활, ③ 학교생활, ④ 자신의 꿈 4 가지로 한다. 4 가지 중의 일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에비 버메이스터의 양육 조건과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연구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관리·원조·지도라는 양육 방법은 시설의 심리적 환경이라는 지표로 대체한다. 여기에서 환경에 대해 잠깐 언급하면, 정원식은 환경을 구조 요인과 과정 요인으로 나누어, 과정 요인을 심리적 환경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의 관리·원조·지도라는 양육에 대하여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시설의 심리적 환경이라고 정의한다. 시설 환경의 영향력은 시설의 물리적 조건보다도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대하는 과정적 환경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나 응집력, 상호 인간관계의 질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정원식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정의 주요 과정 변인으로서 '성취 - 비성취', '개방 - 폐쇄', '친애 - 거부', '자율 - 타율', '보호 - 방임'을 들고 있다. 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성취 - 비성취’ :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하며, 항상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를 가지고 과업의 달성을 요구하는 성취적인 과정의 극과 무사 안일, 현실 만족을 강조하는 비성취적인 경향의 극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개방 - 폐쇄’ : 대인관계에서의 무편견, 자유스러운 자기 개진, 자기중심적 사고의 탈피를 포함하는 개방의 극과 편견적 태도, 자기蔭蔽, 자기중심적 사고의 경향을 나타내는 폐쇄의 극을 연결하는 심리적 과정의 측면이다.

‘친애 - 거부’ : 애정·이해·존중의 태도로서 표시되는 심리적 과정과 무시, 학대, 체벌, 거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극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자유 - 타율’ : 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르는 자유를 인정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비지시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의 극과 지시, 지배, 억압, 금지 일변도의 태도를 대하는 통제극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자유를 비권위주의적이라고 한다면, 통제는 권위주의적 관계이다.

‘보호 - 방임’ : 관심의 표시, 따뜻하게 감싸주는 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력하는 일을 포함하는 보호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극과 무시, 무관심, 방치, 무성의 등으로 나타나는 방임의 극을 연결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김형태가<sup>15)</sup>는 이러한 정원식의 것에 김재은의 것을 참고하여, ‘가족구성원(이 연구에서는 시설구성원) 상호간의 태도’, ‘가족(이 연구에서는 시설성원)의 응결력’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sup>16)</sup>, 법인 아동 복지시설과 소규모 시설을 비교하므로써(<표 1>참조) 그 단서를 찾고자 한다.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시설당 평균 수용 인원은 대규모 시설이 67.2명이고, 소규모 시설이 12.7

14) 정원식,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1978, p. 109.

15) 김형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연구 - 발달 및 측정을 중심으로 -』,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9.

16) 김재은의 연구 중(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대 출판부, 1974) [가정환경진단척도(1972)]를 참고하여, 시설환경을 ‘아동에 대한 직원의 통제’, ‘양육과 보호’, ‘정서적 관계’, ‘직원간의 조화’, ‘시설의 분위기’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시설성원간 사회적 거리를 연구한 것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성원을 도움을 받는 자(아동)와 도움을 주는 자(보육사, 총무, 원장)로 구분하고, 도움을 주는 자들의 태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한 것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보육사의 훈육의 정당성, 지시의 강제성, 칭찬위주인가 비난위주인가, 등 보육사의 통제방법, 보육사의 양육보호 태도, 아동과 보육사의 정서적 관계 등에 따라서 아동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사회집단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ego가 지각하는 친근, 거부감의 정도)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함철호, “사회복지시설 성원간 사회적 거리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16,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93.



명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입소 경로를 보면, 운영자의 인맥(33.3%), 아동 연고자의 의뢰(32.2%), 행정관서의 의뢰(16.7%)의 순이다. 반면, 대규모 시설은 행정관서의 의뢰(68.9%)가 주 입소경로고, 타시설 전원(20.3%)이 다음이다<sup>17)</sup>. 이를 볼 때 행정관서의 의뢰 비율에서 양시설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수를 보면, 소규모 시설보다 대규모 시설에 많다. 종사자 1명당 아동수를 보면 대규모 시설이 5.5명(취사·세탁부, 관리인 등을 빼면 7.1명)이고 소규모 시설이 8.4명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2 - 3명의 종사자가 원장, 총무, 보육사, 세탁부, 취사원 등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소규모의 경우는 음식 및 피복비로의 지출에서 아동1인당 수혜액이 허가 시설보다 떨어지나 직접비의 나머지 대부분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접비면에서는 정부나 민간복지재단의 지원을 받는 허가시설이 월등히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연간 아동 1인당 총지출 수준은 허가 시설의 경우가 소규모 시설의 아동들보다 많은 액의 수혜를 받는다.

끝으로 소규모 시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특성은 한마디로 “소공동체”라는 용어를 요약된다. 첫째, 아동들의 소공동체에서는 가족적인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 예로 이 시설에서의 종사자는 엄마, 아빠, 이모, 삼촌,... 등으로 불리우며 아동과 종사자간에 가족적인 관계를 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아동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다. 둘째, 가족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작은 규모(소규모)를 지향하고 있다. 셋째, 입소시나 퇴소시에도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은 공동체적인 분위기와 화합될 수 있는 아동인지 아닌지를 고려한다는 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기초로 입퇴소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의 비교를 요약해 보면,

첫째, 수용아동을 볼 때, 대규모 시설은 소규모 시설보다 약 4배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입소 경로는 대규모 시설은 관공서에 의해 주로 입소되는 반면, 소규모 시설은 운영자의 연고나 연고자의 의뢰에 의해 입소된다.

둘째, 인력을 볼 때, 대규모 시설은 소규모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셋째, 비용 면에서, 대규모 시설은 간접비 지출이 많은 반면, 소규모 시설은 아동들을 위한 직접비 지출이 많다.

넷째, 운영방식면에서, 소규모 시설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서 가족적 유대감이 강하고, 아동 중심적 운영이 된다.

17) 이태수, 1997, p.16 <표 - 22> 참조. 이하 소규모시설에 관한 자료는 모두 이태수의 글을 인용·참고한 것이다.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표 1> 법인(대규모)시설과 소규모(무허가)시설의 비교

구 분	대규모 시설	소규모 시설
시 설 수	269*	44***
시설당 평균 대지 평수	13,333.33 평	160.78 평
시설당 평균 건평수	1,212.12 평	68.28 평
1명당 건평	16.38 평	5.77 평
수용 인원	18,074*	560***
종사자수	3,306(2546**)	67
사회복지사 수	647	9
시설당 평균 수용 인원	67.2	12.7
종사자 1명당 담당아동 수	5.5(7.1**)	8.4 명
입소 경로	행정기관의 의뢰	운영자연고,연고자의의뢰
비용	간접비가 상대적으로 많다	직접비가 상대적으로 많다
운영방식	가족적 유대감이나 아동중심적이라는 면에서 소규모 시설모다 못하다.	가족적 유대감이 강하고, 아동중심적 운영

- \* 시설수와 수용 인원에는 육아시설 외에 영아, 직업보도, 교호, 자립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육아시설만의 종사자수를 구할 수 없고, 전체 아동시설의 종사자에 관한 자료가 있으므로 전체 아동시설 수치를 이용했다.(자료 : 보건복지백서, 1996, p.291)
- \*\* 아동시설 종사자 중 세탁부, 취사부, 관리인 등의 기타 인력이 760명이므로 그 인력을 뺀 수치이고, 그 수치에 따른 종사자 1인당 담당아동수.
- \*\*\*.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무허가 아동시설수가 27개 363명이나, 이태수의 자료에는 44개소, 560명으로 되어 있다. 무허가 아동시설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이태수의 자료를 이용하므로,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이태수의 자료를 이용한다.

지금까지 양시설을 비교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 시설은 시설이 소규모이므로 가족적 유대감이 강하고, 아동 중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또 아동들은 위한 직접비 지출이 대규모 시설보다 많다는 것도 보았다. 소규모 시설의 이러한 특성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소규모 시설을 주장하는 주장들과 합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보울비가 시설이 모성박탈때문에 시설병을 만들어 내지만, 시설이 불가피할 경우 소규모이어야 한다고 했고, 가정적 처우론에서 일본의 아동복지시설장이었던, 호리문지도 소숙사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에바 버메이스터도 집단생활이 상처 입은 아동에게 치료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의 규모가 가능한 소규모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I: 기본적 양육 조건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에 있어서 소규모 시설 아동과 대규모 시설 아동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의식주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아동과 대규모 시설 아동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2: 일상생활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아동과 대규모시설 아동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3: 학교생활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아동과 대규모 시설 아동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4: 자신의 꿈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아동과 대규모시설 아동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아동과 대규모시설 아동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1: 성취-비성취영역에서 소규모시설 아동이 대규모시설 아동보다 더 성취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II-2: 개방-폐쇄 영역에서 소규모시설 아동이 대규모시설아동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II-3: 친애-거부 영역에서 소규모시설 아동이 대규모시설 아동보다 더 친애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II-4: 자율-타율 영역에서 소규모시설 아동이 대규모시설 아동보다 더 자율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II-5: 시설성원 상호간의 태도 영역에서 소규모시설 아동이 대규모시설 아동보다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II-6: 시설성원간 응집력 영역에서 소규모시설 아동이 대규모시설 아동보다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다음장에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 Ⅲ. 조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보통 무허가시설로 불리는 시설의 아동이다. 본 연구에서 소규모시설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미인가된 아동복지시설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44개소에 달하고 아동 560여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숫자면에서 법인운영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하면, 시설수 측면에서 16.4%, 아동수 측면에서 3.7%에 달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사는 아동중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아동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분석 대상이 된 사례 수는 294개이다. 또 하나의 조사 대상은, 소규모시설 아동과의 비교집단으로 허가 시설의 아동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아동이다. 전국의 육아시설 214개중 27개의 시설에서 310명에게 조사를 하였는데, 이 중 295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소공동체 아동의 사례와 비슷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비슷하게 하는 기준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소공동체가 서울과 대전 그리고 광주에 대부분 소재하고 있으므로, 인가 시설의 경우도 대부분 3지역에서 선정하여 표본은 추출하였고, 분석에서도 지역 변수는 제외하였다.

설문 조사 방법으로는 양 종류의 시설 모두 방문 조사와 우편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지역과 기관을 3 곳으로 나누어 3인의 공동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으며,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은 운영 책임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와 반송 봉투를 동봉하여 우편 조사를 하였다. 우편 조사의 경우 설문 내용상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운영자는 응답 대상 아동을 모아 놓고, 설문지를 주고, 조사 목적을 설명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동중 책임자 1명이 모두 회수하여, 그 자리에서 반송 봉투를 봉한 후 설문지를 반송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 내용을 운영자나 종사자가 안본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측정하는 것이다.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된 것은 없으므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측정하는 도구를 원용하였다. 김형태(1989)가 박사 학위논문으로 작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다

만 김형태의 연구에서 가정은 시설로, 부모는 보모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문항이 김형태의 연구에는 60개 였으나, 문항의 내용이 어렵고, 시설 아동들에게 적합치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제외하여, 44개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극으로 하여 “확실히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당 1 점에서 4점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1점에 가까울 수록 긍정적이고, 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김형태의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므로, 본 조사에서 사전 검사는 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문항 상호간의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내적 일관도를 검증하였고, 이를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9218의 값을 보이고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당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문항의 단순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사후 DUNCAN test)분석을 하였고, 소공동체 아동과 인가시설 아동의 시설 환경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 IV. 조사 결과의 해석

###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표 2>에서 보면, 성별의 경우, 소규모 시설이나 법인 시설이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나이는 소공동체 아동이 법인가동보다 12세 미만 아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 소규모시설은 천주교(90.8%)가, 법인가동복지시설은 개신교(82.0%)가 절대 다수다.

법인시설의 아동은 자신의 출생지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116, 39.3%) 반면, 소공동체 아동은 중소도시, 읍면지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시설거주년수를 보면, 소공동체 아동은 5년미만이 77.3%인데, 법인가동은 64.1%가 6년이상이다. 이를 볼 때, 소공동체아동은 단기거주아동이 많고, 법인가동은 장기거주아동이 많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다고 할 수 있다.

양집단의 경우, 나이, 종교, 출생지, 시설거주년수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앞으로 분석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두번째로, 이전 동거인, 입소 동기, 방문 가족, 함께 거주 형제자매를 보면, 이전 동거인에서만 양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양친, 편부모, 친인척의 빈도가 높는데, 소규모시설의 경우, 편부모와 동거했다는 응답이 특히 많다고 볼 수 있다.<표 3>참조)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I)

(실수, %)

구 분		소 규모 시설	대 규모 시설
성별	남자	146(49.7)	141(47.8)
	여자	148(50.3)	151(51.2)
나이	12세이하	51(17.2)	29(9.9)
	13 - 15	159(54.1)	180(61.0)
	16세 이상	79(26.9)	69(23.4)
종교	천주교	267(90.8)	6(2.0)
	개신교	10( 3.4)	242(82.0)
	불교	5( 1.7)	26(8.8)
	원불교	0	6(2.0)
	기타 종교	0	3(1.0)
출생지	대도시	114(38.8)	123(41.7)
	중소도시	67(22.8)	23(7.8)
	읍·면	78(26.5)	28(9.5)
	모름	27( 9.2)	116(39.3)
시설 거주 년수	1년미만	74(25.0)	11(3.7)
	2 - 5	154(52.3)	58(19.7)
	6 - 10	59(20.0)	119(40.4)
	11 - 15	1( 0.3)	66(22.4)
	16년 이상		4(1.6)

# 전체사례수는 무응답을 포함하여 소규모시설은 294, 법인시설은 295, 합계 589개임. 이하 모든 표에 동일.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II)

(실수, %)

구 분		소 규모 시설	대 규모 시설
이전동거인	양친	39 (13.3)	50 (16.9)
	편부모	128 (43.5)	87 (5.1)
	형제만	21 (7.1)	15 (5.1)
	친인척	71 (24.1)	70 (23.7)
	수녀 등 독지가	6 (2.0)	10 (3.4)
	다른 시설	17 (5.8)	9 (3.1)
	기타	8 (2.7)	27 (9.2)
	없음	4 (1.4)	33 (11.2)
입소동기	부모 사망	42 (14.3)	27 (9.2)
	부모이혼	49 (16.7)	54 (18.3)
	어머니 가출	64 (21.8)	37 (12.5)
	아버지 가출	1 (0.3)	3 (1.0)
	가정빈곤	59 (20.1)	50 (16.9)
	가정폭력·불화	27 (9.2)	30 (10.2)
	부모 중 1명 사망	8 (2.7)	7 (2.4)
	자신 가출	20 (6.8)	3 (1.0)
	부모 사망과 가출	8 (2.7)	5 (1.7)
	탈원 또는 법원재판	5 (1.7)	6 (2.0)
	가정사정상 일시 입소	4 (1.4)	5 (1.7)
	부모 모두 가출	1 (0.3)	1 (0.3)
방문가족 유무	양친	5 (1.7)	7 (2.4)
	편부모	92 (31.3)	56 (19.0)
	형제자매	17 (5.8)	15 (5.2)
	친인척	60 (20.4)	41 (13.9)
	아는 사람	12 (4.1)	8 (2.7)
	없음	104 (35.4)	156 (52.9)
시설내 함께 거주 형제자매	1명	61 (20.7)	63 (21.4)
	2명	22 (7.5)	27 (9.2)
	3명이상	13 (4.4)	28 (9.5)
	없음	197 (67.0)	176 (59.7)

### 2. 자신의 양육상태에 대한 평가

아동들이 자신들의 양육 상태 혹은 생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평가란 아동들이 자신의 양육 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어떤 사실과 사실에 대한 긍정·부정을 의미한다고 보고자 한다.

#### 1) 의식주에 대한 평가

의식주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보면 <표 4>와 같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먹는 국이나 반찬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 소규모시설 아동은 73%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법인시설아동은 25.1%만이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불만이라는 항목에서도 양집단에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만족을 1점, 불만을 3점으로 하여 평균을 내면, 소공동체아동의 평균은 1.2867이고, 법인 시설 아동의 평균은 1.9017이다. 이를 볼 때, 소공동체 아동이 법인 시설 아동보다 국·반찬에 대한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옷·신발에 대한 응답도 소공동체 아동은 만족이 36.5%인 반면, 법인 시설 아동은 12.6%밖에 되지 않는다. 불만 항목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평균값도 소공동체 : 법인아동시설이 1.7713 : 2.2313이다. 이를 볼 때, 의복에 대해서도, 소공동체 아동이 법인시설아동보다 더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하나에서 몇 명이 살면 좋은가 하는 질문에, 양집단 모두 89.3%의 아동이 5명이하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양집단 모두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대답은 2, 3명이다. 이것은 시설의 운영자나 정부의 관계자들이 유념해야 할 응답이라고 본다. 용돈을 보면, 평균적으로 소공동체 아동은 13279원을 받고, 법인아동복지시설 아동은 8955원을 받고 있다. 이를 볼 때, 소규모시설 아동이 법인시설 아동보다 용돈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집에서 생활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는 질문에 소규모시설 아동들은 즐거운 편이라는 응답이(47.6%) 많고, 법인 시설 아동들은 보통, 즐겁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많다.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소규모 시설 아동은 ‘학교 마칠 때까지’, ‘취직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법인 시설 아동은 가능하면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다 “이 집은 나간 다음에 지금의 집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수시로 오겠다는 응답이 법인 아동보다 소공동체 아동에 많다. 모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법인 시설 아동보다 소규모시설아동이 의식주에 더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가설 I - 1은 채택된다.



<표 4> 소규모시설과 법인시설 아동간의 의식주에 대한 태도

구 분		소규모시설	대규모시설	
국·반찬에 대한 태도	만족	214 (73.0)	74 (25.1)	$\chi^2=141.66$ df = 2 p = .000
	보통	74 (25.3)	176 (59.7)	
	불만	5 ( 1.7)	45 (15.3)	
	평균 점수	1.2867	1.9017	
옷·신발에 대한 태도	만족	107 (36.5)	37 (12.6)	$\chi^2 = 6.33$ df = 2 p = .000
	보통	146 (49.8)	152 (51.7)	
	불만	40 (13.7)	105 (35.7)	
	평균 점수	1.7713	2.2213	
자기 책상 유무	있다	211 (72.0)	198 (68.0)	
	없다	82 (28.0)	93 (32.0)	
방1개거주 희망 인원	1 명	28 ( 9.5)	14 ( 4.8)	
	2 - 3	110 (50.9)	157 (53.3)	
	4 - 5	85 (28.9)	93 (31.5)	
	7명 이상	27 (13.1)	26 ( 8.9)	
동거식구 유형	같은 학년	114 (38.8)	95 (32.2)	
	고·저학년	177 (60.2)	194 (65.8)	
용 돈	2,000원 이하	6 ( 2.0)	10 ( 3.4)	
	2,005 - 5,000	34 (12.9)	51 (17.3)	
	5,001 -10,000	101 (34.3)	135 (45.7)	
	10,001- 30,000	86 (29.2)	53 (18.7)	
	30,000원 이상	21 ( 7.1)	0	
	평 균	13,279원	8,955원	
	최고액	120,000	30,000	
	최저액	1,000	500	
최빈치	10,000	10,000		
집생활에 대한 태도	즐거운 편	140 (47.6)	54 (18.4)	$\chi^2= 74.148$ df = 2 p = .000
	보통인 편	139 (47.3)	174 (59.2)	
	즐겁지 않은 편	15 ( 5.1)	66 (22.4)	
	평균 점수	1.5748	2.0408	
시설 거주 희망 기간	학교 마칠 때까지	102 (35.1)	94 (32.1)	$\chi^2= 41.243$ df = 4 p =.000
	취직할 때까지	101 (34.7)	73 (24.8)	
	가능하다면 평생 있고 싶다	45 (15.5)	21 ( 7.2)	
	빨리 나가고 싶다.	43 (14.8)	106 (36.2)	
퇴소후 방문 태도	수시로 오겠다	78 (61.4)	106 (36.2)	$\chi^2 = 45.680$ df = 3 p = .000
	1년에 한번 이상 오겠다	93 (32.1)	130 (44.4)	
	2 - 3년에 한번 오겠다.	11 ( 3.8)	20 ( 6.8)	
	올 생각없다	8 ( 2.8)	37 (12.6)	

2)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이 집 식구 중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소공동체 아동은 72.0%가 있다고 응답했고, 법인시설아동은 62.7%가 없다고 응답을 하여, 응답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를 보았더니, 소공동체 아동은 얼마나 아파처럼 생각한다는 응답이(78.3%) 많았고, 법인시설아동은 직원·선생님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0.5%) 많아 집단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경우, 양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소공동체 아동은 좋아한다는 응답이 많고, 법인 시설 아동들은 누군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것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두번째에서, 소공동체 아동은 31.3%의 아동이 편부모가 방문한다는 것과, 법인시설아동은 52.9%가 방문 가족이 없다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참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소공동체 아동들이 법인 시설 아동들보다 시설 종사자(부모)들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 두번째 것으로, 먼저,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법인시설아동은 “공부를 잘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한다는 응답이, 소공동체 아동은 나의 장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양집단간에 분명한 차이( $P = .0014$ )를 보이고 있다. 학원을 다니거나 외부 과외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더니, 소규모시설 아동은 하고 있다는 응답이, 법인시설아동은 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신의 생활에 대해 소규모시설 아동들은 희망을 갖고 자신있게 생활한다는 응답이 많고, 법인 시설 아동들은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그럭저럭 살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소공동체아동들은 인격을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법인 시설 아동들은 버림받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표 6>참조)

이를 볼 때, 소공동체 아동들이 법인시설아동들보다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I - 2는 채택된다.

<표 5>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 (I)

구 분		소규모시설	대규모시설	
의지인 유무	있다	211 (72.0)	109 (54.7)	$\chi^2 = 71.005$ df=1, p=.000
	없다	82 (28.0)	183 (62.7)	
부모에 대한 느낌	엄마나아빠처럼생각	227 (78.3)	63 (21.6)	$\chi^2 = 208.863$ df = 4 p = .0000
	직원선생님으로생각	41 (14.1)	206 (70.5)	
	누나나언니처럼생각	17 (5.9)	23 ( 7.9)	
아버지 인상	좋다	152 (51.7)	88 (32.4)	$\chi^2 = 59.38$ df = 3 p = .000
	보통	73 (24.8)	60 (22.1)	
	싫다	48 (16.3)	37 (13.6)	
	누군지 모름	21 ( 7.1)	87 (32.0)	
	평균	1.5034	1.1728	
어머니 인상	좋다	125 (42.7)	83 (29.5)	$\chi^2 = 21.28$ df = 3 p = .00009
	보통	58 (19.8)	48 (17.1)	
	싫다	61 (20.8)	60 (21.4)	
	누군지모름	49 (16.7)	90 (32.0)	
	평균	1.4471	1.2776	
가출 경험	없다	167 (57.0)	231 (78.3)	$\chi^2 = 32.72$ df = 2 p = .0000
	한두번 가출	76 (25.9)	46 (15.6)	
	몇차례 가출	50 (17.1)	18 ( 6.1)	

# 전체사례수는 무응답을 포함하여 소공동체는 294, 법인은 295, 합계 589개임.

\* 누군지 모름을 0으로 하고, 좋아한다는 1점, 보통이라는 2점, 싫어한다는 3점으로 하여 평균하였음.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표 6>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II)

구 분		소규모시설	대규모시설	
공부에 대한 생각	장래를 위해 열심히	69 (23.5)	57 (19.2)	$\chi^2=15.489$ df=3 p=.001
	열심은 생각뿐이고 실천못함	214 (73.0)	204 (69.4)	
	잘해도성공하지못할것같아 포기	10 ( 3.4)	34 (11.6)	
학원수강 ·과의 여부	하고 있음	108 (37.4)	61 (21.0)	$\chi^2=19.883$ df=2 p=.0005
	하지 않지만 하고 싶음	100 (34.6)	114 (39.3)	
	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음	81 (28.0)	115 (39.7)	
자신의 생활평가	희망을 가지고 자신있게 생활	149 (50.7)	97 (32.9)	$\chi^2 =23.62$ df=2 p=.0001
	특별계획은 없으나 그럭저럭 삶	34 (45.6)	168 (56.9)	
	절망 속에서 살고 있음	11 ( 3.7)	30 (10.2)	
사회 에서의 대우	인격을 존중받고 있는 편	125 (43.0)	101 (34.3)	$\chi^2 =35.037$ df=3 p=.000
	사회는 우리에게 무관심	155 (53.3)	137 (47.1)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	11 ( 5.8)	55 (18.9)	

### 3)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를 보면 <표 7>과 같다. “지금의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하는 물음에 대해 소공동체의 아동이나 법인 시설의 아동이나 보통, 즐거운 편이라는 응답이 80%이상인 되는 점이 공통점이며, 집단간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설 아동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학업 성적 정도에 있어서, 소공동체 아동들은 상에 속한다는 응답이, 법인시설아동은 하에 속한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이 있어, 집단간에 유의미한(p=.0015)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의 원인을 굳이 제시한다면,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II)에서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법인시설 아동들보다 학원 수강과 과외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 공부에 대한 생각에서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더 긍정적이었던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물을 잘 챙기는가를 보면, 소공동체의 아동들은 잘 챙겨간다는 응답이(50.0%) 많고, 법인 시설 아동들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아(56.1%),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임 선생님과 관계를 보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소공동체 아동에 많고(50.3%), 별로 안 좋다는 응답은 법인 시설 아동에게 더 많은 편이다.

요컨대, 학교생활이 즐거운가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지만, 학업성적 정도, 준비물 챙기는 것이나, 담임 선생님과 관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아동이 법인시설아동보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구 분		소규모 시설	대규모 시설	
학교생활	즐거운 편	152 (53.0)	132 (45.1)	$\chi^2 = 3.84$ df = 2 p = .1463
	보통	107 (37.3)	124 (42.3)	
	지겨운 편	28 ( 9.8)	37 (12.6)	
	평균 *	1.5679	1.6758	
학업성적정도	상(반에서 1 -15등)	47 (16.4)	25 ( 8.6)	$\chi^2=12.893$ df = 2 p = .0015
	중(반에서 16-30등)	111 (38.8)	98 (33.7)	
	하(반에서 31등이하)	128 (44.8)	168 (57.7)	
준비물 챙김	잘 챙겨감	144 (50.0)	97 (33.0)	$\chi^2=18.252$ df = 2 p = .0001
	보통	126 (43.8)	165 (56.1)	
	못 챙겨 감	18 ( 6.3)	32 (10.9)	
담임선생님과 관계	좋은 편	145 (50.3)	119 (40.6)	$\chi^2=14.804$ df = 2 p = .0006
	보통	125 (43.4)	128 (43.7)	
	않좋은 편	18 ( 6.3)	46 (15.7)	
	평 균**	1.6285	1.7506	

\*은 즐거운 편 = 1, 보통 = 2, 지겨운 편 = 3 으로 하여 평균하였음.

\*\*은 좋은 편 = 1, 보통 = 2, 별로 안좋다 = 3으로 하여 평균하였음.

#### 4) 자신의 꿈에 대한 전망

자신의 꿈에 대한 전망을 대학 진학, 40살정도에서의 자신의 위상, 가정 생활 자신감 정도로 구분하여 본 결과 <표 8>과 같다. 고졸후 바로 대학 진학하겠다는 응답은 소규모시설 아동들에게 많고(41.7%), 대학 진학 계획은 없고, 취직을 원한다는 응답은 법인 시설 아동들에게 많다(46.8%). “여러분은 자신이 40살 정도의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라는 문항에 소규모시설 아동이나 법인 시설 아동이나 구분 없이, 80%이상의 응답자들이 평범한 사회인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아동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분이 장차 결혼하였을 때, 각자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맡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소규모시설 아동들이나 법인 시설 아동들이나 구분 없이 90%이상의 응답자들이 “가정집에서 자란 아이들만큼 할 것이다”, “잘 해낼 것이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요컨대, 자신의 꿈에 대한 전망에서 대학 진학에 대한 전망만이 양집단간에 차이가 있고, 다른 항목에는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 I - 4는 기각된다고 볼 수 있다.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표 8> 자신의 꿈에 대한 전망

구 분		소규모 시설	대규모 시설	
대학진학에 대한 전망	고졸후 바로 진학	121 (41.7)	97 (33.1)	$\chi^2 = 20.0321$ df = 2 p = .00004
	취업 후 진학	85 (29.3)	59 (20.1)	
	진학계획없고,취직원	84 (29.0)	137 (46.8)	
40정도의 자신의 위상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	91 (31.1)	87 (29.8)	$\chi^2 = 3.2134$ df = 3 p = .3598
	평범한 사회인	49 (50.9)	138 (47.3)	
	실패하여 고생하는 사람	7 ( 2.4)	5 ( 1.7)	
	모르겠다	46 (15.7)	62 (21.2)	
가정생활 자신감정도	잘 해낼 것	173 (59.2)	149 (51.0)	$\chi^2 = 4.6230$ df = 3 p = .2158
	가정집아이만큼 할 것	97 (33.2)	114 (39.0)	
	잘 할 것 같지 않다.	22 ( 7.5)	29 ( 9.9)	

### 3. 시설에 대한 심리적 환경의 차이

#### 1) 성취-비성취에 대한 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 - 비성취”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면 <표 9>와 같다. 성별, 나이, 학력과 같은 변수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않고, 시설거주년수와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여부가 통계적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설거주년수의 경우 5년미만 아동들이 6년이상 거주한 아동들보다 더 성취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더 성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 시설 아동간에 성취-비성취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볼 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법인 시설 아동들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p = .000)를 보이고 있어, 시설의 심리적 환경의 성취 - 비성취 영역에서의 가설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법인 시설 아동들보다 더 성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 - 비성취”에 대한 태도 차이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도
성별	남자 (277)	2.1675	.416	t=-1.37	p=.170
	여자 (286)	2.2154	.410		
나이	12세 이하 (78)	2.1000	.406	f=2.18	p=.114
	13 - 15세 (323)	2.1895	.400		
	16세 이상 (143)	2.2196	.442		
학력	초등학생 (104)	2.1385	.408	f=1.72	p=.162
	중학생 (335)	2.1952	.411		
	고등학생 (116)	2.2414	.427		
	졸·취업자 (8)	2.0000	.338		
시설거주년수	1년 미만 (80)	2.0400CD	.427	f=5.55	p=.000
	2 - 5년 (206)	2.1437CD	.433		
	6 - 10년 (171)	2.2515AB	.375		
	11 - 15년 (63)	2.2984AB	.426		
	16년 이상 (4)	2.4000	.365		
의지할 사람여부	있다 (310)	2.0806	.386	t=-7.31	p=.000
	없다 (252)	2.3262	.408		

## 평균치 옆에 있는 ABCD는 분산분석에 있어서 개별집단간 차이(DUNCAN)를 표 시한 것임, 이하 심리적 환경에 관한 표에서는 동일

<표 10> 양 시설 아동간에 “성취-비성취”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소규모시설(282)	2.0688	.412	7.39	.000
법인 시설(284)	2.3141	.376		

2) 개방 - 폐쇄에 대한 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방 -폐쇄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성 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보여(t=-4.54, p=.000) 남자가(M=2.2283) 여자 (M=2.4491)보다 개방적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나이별로도 차이가 나(F= 4.3780, P=.0130)서, 12세이하 아동(M=2.1678)이 13세 이상의 아동(M=2.1678)보다 더 개방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으로는 초등학생(m=2.1936)과 중학생 (m=2.4013)이 차이가 있어(p=.0131), 초등학생이 더 개방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시설거주년수도 집단간에 차이를 드러내는 변수인데, 사례수가 부족한 16년이상의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아동을 제외하더라도, 각 집단간에 차이가 분명한( $p=.025$ ) 거주 연수가 적은 아동이(1년미만=2.2078) 많은 아동(6 -10년=2.3874)보다 개방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변수는 중요한 변수인데, 있다는 응답을 한 아동이( $m=2.1856$ ) 없다는 응답을 한 아동( $m=2.5386$ )보다 시설이 개방적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p=.000$ ).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 아동 복지시설 아동간에 “개방-폐쇄”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면, 양 집단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리적 환경의 “개방 - 폐쇄” 영역에서도 소규모시설 아동이 법인 시설 아동보다 더 개방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표 11>참조

<표 11> 양 시설 아동간에 “개방-폐쇄”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소규모시설(285)	2.1904	.579	-6.43	.0000
법인시설(285)	2.4965	.558		

### 3) 친애 - 거부에 대한 태도 차이

친애 - 거부에 대한 태도가 성별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 앞의 변수와 차이가 있다. 나이별로도 차이가 나서( $f=5.1011$ ,  $P=.006$ ), 12세이하 아동( $M=1.9299$ )이 13세 이상의 아동( $M=2.1632$ )보다 더 친애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학력으로는 초등학교생( $m=1.9962$ )과 중학생( $m=2.1644$ )이 차이가 있다( $p=.0401$ ) 시설 거주 연수도 집단간에 차이를 드러내는 변수인데, 사례 수가 부족한 16년 이상의 아동을 제외하더라도 각 집단간에 차이가 분명한( $p=.000$ ) 거주 연수가 적은 아동이(1년미만=1.9661) 많은 아동(6 -10년=2.1639)보다 친애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을 한 아동이( $m=1.9277$ ), 없다는 응답을 한 아동( $m=2.3561$ )보다 시설이 개방적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t=9.61$ ,  $p=.000$ ).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시설 아동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규모시설 아동이 법인시설 아동보다 친애적이라고 응답을 하여 가설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12>참조)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은 소규모시설 아동은 평균이 1.8923 이고, 법인 아동은 2.3495이라는 점수가 의미하는 것인데, 2점을 기준으로 볼 때 소규모 시설 아동들이 긍정의 태도를 보이고, 법인 아동은 부정적 의미의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표 12> 양 시설 아동간에 “친애-거부”에 대한 태도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소규모시설(260)	1.8923	.477	-10.44	.000
법인아동복지시설(264)	2.3495	.524		

4) 자율 - 타율에 대한 태도 차이

자율 - 타율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없다. 나이별로도 차이가 나서( $f= 5.667, P=.0037$ ), 12세미만 아동( $M=2.2921$ )이 13세 이상의 아동( $M=2.3862$ )보다 더 자율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학력으로는 중학생( $m=2.3748$ )과 고등학생( $m=2.2399$ )이 차이가 있어( $p=.028$ ), 고등학생이 더 자율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앞의 태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설거주년수가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을 한 아동이( $m=2.2157$ ), 없다는 응답을 한 아동( $m=2.4846$ )보다 시설이 자율적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t=6.75, p=.000$ ).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시설 아동간에 “자율-타율”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면, <표 13>에서와 같이 소규모시설 아동이 법인 아동 복지시설 아동보다 자율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 II - 4 는 받아들여진다.

<표 13> 양 시설 아동간에 “자율-타율”에 대한 태도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소규모시설(259)	2.2625	.440	-3.46	.001
법인시설(273)	2.4042	.499		

5) 시설 구성원 상호간의 태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시설 성원간 ‘자율 - 타율’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성별로는 차이가 없다. 나이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f= 8.188, P=.0003$ ), 12세미만 아동( $M=2.1923$ )이 13세 이상의 아동( $M=2.4396$ )보다 시설성원간 긍정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도 초등학생( $m=2.260$ )과 중·고등학생(중학생= $2.4451$ , 고등학생= $2.4276$ )이 차이가 있어( $f=8.6624, p=.0068$ ),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보다 성원들 사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시설거주년수가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고 있다. 1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년에서 5년 미만 집단과 6년 이상 거주한 아동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f=8.6624$ ,  $p=.0000$ ).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변수는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있다는 응답을 한 아동이( $m=2.2364$ ), 없다는 응답을 한 아동( $m=2.6135$ )보다 시설이 자율적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t=-9.68$ ,  $p=.000$ ).

소공동체 아동과 법인시설아동에서 시설 성원 상호간의 태도에 있어도 분명한 차이( $p = .000$ )를 보이고 있는데(<표 14>참조), 소규모시설 아동들의 평균값이 2.1974이고, 법인 아동은 2.6056이어서,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법인 아동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14> 양시설 아동간에 “시설성원 상호간 태도”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소규모시설 (278)	2.1974	.451	-10.70	.000
법인시설 (284)	2.6056	.454		

### 6) 시설 성원간의 응집력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시설 성원간 응집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성별로는 차이가 없다. 나이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f=3.9423$ ,  $p=.0200$ ), 12세미만 아동( $M=1.9797$ )이 13세 이상의 아동( $M=2.1901$ )보다 시설 성원간 응집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도 초등학교생( $m=2.030$ )과 중학생(중학생=2.209)이 차이가 있어( $p=.0068$ ), 초등학교생들이 중고등학생보다 성원들 사이에 응집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도 시설거주년수가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 내는 변수가 되고 있다. 1년에서 5년 미만 집단과 6년 이상 거주한 아동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7.3763$ ,  $p=.0000$ ).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변수는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있다는 응답을 한 아동이( $m=1.9541$ ), 없다는 응답을 한 아동( $m=2.4180$ )보다 시설이 자율적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t=-9.98$ ,  $p=.000$ ).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 시설 아동에서 성원간의 응집력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 $p = .000$ )를 보이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 아동들의 평균값이 1.9406이고, 법인 아동은 2.3883이어서,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법인 아동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문에서의 차이는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평균 점수를 보면 법인은 2.3이고, 소규모 시설은 1.9이다. 2점을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시설 아동은 성원들 간에 응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대규모시설 아동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양집단간의 상대적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 차이라고 볼수 있다.

<표 15> 양 시설 아동간에 “시설 성원간의 응집력”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소규모시설(278)	1.9406	.500	-9.63	.000
법인시설 (273)	2.3883	.588		

7) 시설의 심리적 환경 전체에 대한 태도 차이

시설의 심리적 환경 전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없고, 앞에서 변별력이 있었던, 학력이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나이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 4.6296, P=.0103), 12세미만 아동(M=2.1148)이 16세이상의 아동(M=2.4442)보다 시설 환경 전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설거주년수가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 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다. 1년에서 5년 미만 집단과 6년 이상 거주한 아동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5.2673, p=.0004).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변수는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있다는 응답을 한 아동이(m=2.0864), 없다는 응답을 한 아동(m=2.4223)보다 시설이 자율적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t=-8.99, p=.000).

시설의 심리적 환경 전체 면에서도,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시설 아동간에 분명한 차이(p = .000)를 보이고 있는데, 소규모시설 아동들의 평균값이 2.0864이고, 법인 아동은 2.4223이어서,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법인 아동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표 16>참조)

<표 16> 양 시설 아동간에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소규모시설(207)	2.0864	.379	-8.99	.000
법인시설(223)	2.4223	.395		

8)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결정 요인

지금까지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또 각 영역을 합쳐서, 성별, 나이, 학력, 시설거주년수, 의지할 사람 여부 등의 변수를 설정해 소규모 시설 아동과 법인 시설 아동간에 차이가 나는 가를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본 바대로, 설명력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하는 성별, 학력 등을 제외하고, ‘집생활의 즐거움 정도’, ‘시설 입소전 동거인 유무’ 등과 같은 변수를 새로 넣어 독립변수로 하고, 이러한 변수들 중 어떠한 요인이 시설의 심리적 환경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아보고자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 17>과 같다.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표 17>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 분석표

변수명	회귀계수(B)	표준화회귀계수 (Beta)	t값	t값의 유의도
이전동거인구분(106)	.001454	.008792	.216	.8292
나이(102)	-5.89349E-04	-8.722E-04	-.021	.9830
집생활의 즐거움 정도(IV08)	.296526	.435810	10.166	.0000
소규모시설,법인(SOGG12)	.196127	.228207	4.531	.0000
의지할 어른 존재여부(IV01)	.159869	.185423	4.257	.0000
시설거주연수(105)	.005776	.012156	.239	.8112
(Constant)	1.186122		13.566	.0000

R Square .43126

F = 47.51783

Signif F = .0000

Durbin-Watson Test = 1.47162

이 같은 결과를 회귀 방정식에 대입하면, ‘시설의 심리적 환경’ = 1.186122 + .001454 x 106 - 5.89349E-04 x 102 + .296526 x IV08 + .196127 X SOGG12 + .159869 X IV01 + .005776 X 105 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로 설정한 6개의 변수가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43.1% 설명해 주고 있다. 개별 회귀 계수에서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설명해 주는 변수는 ‘집생활의 즐거움 정도’,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인가 법인 시설인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3가지이다. 앞의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서 이전 동거인은 소규모시설 아동들에게 많았고, 시설 거주 연수는 법인 시설 아동들이 길었다. 이러한 것들은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설의 생활이 즐거운가 아닌가, 시설의 형태가 소규모 아동 복지시설인가 아닌가, 시설에 의지할 어른이 있는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의 기본 조건 면에서, 의식주, 일상생활, 공부 면에서 소규모시설 아동이 법인시설아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꿈부분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전망이 소규모시설아동이 더 좋다는 것외에는 양집단간에 차

이가 나지 않았다. 관리·원조·지도라는 시설의 양육에 대해 아동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시설의 심리적 환경 부분에서도,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법인시설 아동들보다 성취적이고, 자율적이고, 친애적이고, 개방적이며, 성원 들간에 긍정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규모시설이 아동들에게 긍정적이라는 주장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소규모시설화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시설은 소규모화되어야 하며, 방하나에서 몇 명이 살면 좋은가 하는 질문에, 양집단 모두 89.3%의 아동이 5명이하라는 응답을 하고 있고, 가장 빈도가 높은 대답은 2, 3명이라는 것을 시설의 운영자나 정부의 관계자들은 유념해야 할 응답이라고 본다.

그러면 왜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양육 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냐? 본 연구의 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은 '소공동체'라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소공동체에서는 가족적인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 ----- 아동과 종사자간에 가족적인 관계를 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아동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가족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작은 규모(소규모)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소공동체의 운영 방식은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했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시설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집단생활'에서는 집단의 크기가 그 질을 좌우하므로, "아동과 시설보호 cottageparent의 비율은 20:1보다 더 적은 8 : 1이하게 되어서" "공동생활의 규모를 가능한 한 가족 집단에 가까운 작은 집단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에바 버메이스터가 주장과 소공동체는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소공동체 아동들의 72%가 "이 집에서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것(<표 5>참조)은, 그녀가 치료적 보호의 첫째 조건으로 "보호를 담당하는 보모나 지도원이 아동의 부모에 대신하여 아동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근한 성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것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공동체는 "어른의 흥미와 명령에 의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흥미와 욕구에 의한 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집단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통제를 중시하고 집단 모델을 존중하는 자발성 존중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세끼다의 '집단주의 보호이론'을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본 연구의 가설을 채택하도록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친애 - 거부'영역과 성원간의 '응집력'부분에서 소공동체 아동들은 절대적 의미(법인과의 비교라는 상대적 의미가 아닌) 긍정적 대답을 하고 있다. 결국 "집단 속에 개별화, 일상생활 그 자체에 아동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요인 즉, 소공동체적 운영의 구체적 모습

##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

은 어떠한가? 이 연구의 단서는 이태수의 연구에서, 공동체의 운영자들이 “소규모 무허가 시설로 있는 이유”를 대규모의 “허가시설로 운영하는 것보다 소규모 운영이 보육효과면에서 더 나아서” 라고 하는 운영자 100%의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공동체 운영자들의 이러한 경험적 주장을 객관화·과학화하는 연구가 이 다음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연구 과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다시 증명하는 연구든, 이 결과를 반증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했는데, 이 차이를 증명하든, 반증하든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환경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심리적 환경만을 측정하였는데, 시설의 구조 요인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